



대학주보

의대생 전원복귀 후 수강신청 10%, 수업 거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우리학교 의대생이 전원 복귀했지만, 예·본과 모두 수강신청률이 약 10%에 그치고 있다. 복귀는 했지만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8일까지 의대 복귀 시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학생 의견이 엇갈리자 복귀 마감일을 30일로 연장했다.

이에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으며, 의대 행정실 측은 지난 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 요청으로 기간이 지난 6일로 연장됐다. 그럼에도 수강신청률은 약 10% 남짓한 상황이다.

의예과 1학년 전공 의학심화연구 1, 2학년 전공 의학심화연구3 수업을 담당하는 윤경식(의예과) 교수는 "수강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110명 강의에 10명 정도 수강 신청했고, 2~3명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월까지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수강하는 학생은 두세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본과도 마찬가지다. 본과 1학년 전공 생리학 수업을 담당하는 조영욱(의예과) 교수 역시 "대략 110명 정원 수업인데 총 11명이 신청했다"며 "이 중 4명은 신청만 했을 뿐, 수업을 듣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수업 역시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본과 영역에서는 대략 10%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며 "학생은 보통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학년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 실습을 제외한 대면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교수는 "병원 실습도 대부분 전공의가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의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은 해당 학기를 유급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도 학칙에 의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유급 절차를 밟고 있다. 연세대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대 의대는 학생 전원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역시 모든 본과생이, 연세대는 고학년 절반 가량이 복귀했다.

노천극장서 다시만남봄 '경희랜드' 성황리에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노천극장 일대에서 봄맞이 행사 '2025 경희랜드'가 개최됐다.

올해 봄맞이 행사는 사색의광장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과 주변 길목에 늘어선 벚꽃 나무 아래에서 진행됐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현장에는 ▲프로모션 부스 ▲푸드트럭 ▲학생 부스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푸드트럭이 길게 늘어선 공간 맞은편에 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봄을 즐겼다. 총학생회가 마련한 주류 부스와 푸드트럭에서 사 온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흠날리는 벚꽃잎 사이 학과 점퍼나 봄옷을 입고 사진



올해 행사는 사색의광장 공사 진행으로 인해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원희재 기자)

을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김가은(전자공학 2023) 씨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 이번 행사를 통해 봄을 만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관 옆 오르막길 한쪽에는 자유롭게 분필로 아스팔트 바닥을 꾸밀 수 있는 '분필존'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바닥에 저마다 자신의 이름, 소속 동아리나 학과를 적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권준원(환경

학 및 환경공학)씨는 "노천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노천극장 입구에는 다양한 학생 부스가 마련됐다. 그중 가장 인기를 끈 부스는 소개팅 부스 '히든(Hidden)'이었다. 연락처와 SNS 정보를 적으면 새로운 인연을 연결해준다. 타 부스에 참여해 3개의 스탬프를 받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부스를 방문한 한 학생은

수줍은 표정으로 연락처를 적기도 했다.

저녁 7시에는 노천극장 무대에서 '벚꽃 영화제'도 열렸다. 이틀간 영화 '너의 결혼식'과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상영됐다. 학생회는 별도 부스에서 관람객을 위해 팝콘을 제공했다. 송시안(골프산업학 2023) 씨는 "벚꽃이 핀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특별한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개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주은(전자공학 2023) 씨는 "작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더욱 다채로운 색깔의 행사인 것 같다"며 "내년에도 열린다면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건우(원자력공학 2021) 씨도 "그늘진 곳이 별로 없는 사색의광장보다 노천극장이 선선하고 여유로운 것 같아 더 좋았다"고 말했다.